

에드워드 윌슨 《통섭》 생명과학자가 쓴 철학서의 감동

내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저자로 이미 화제가 됐던 윌슨의 이름을 다시 듣고, 하버드대학 정문 앞 책방에서 그의 방대한 저서인 《사회생물학》 표지와 목차를 본 것은 1970년대였다. 당시 그는 저서에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지만 철학자로서의 나는 생물학자의 과학적 이론에서는 철학적 배움을 얻을 수 없다는 선입관을 가졌기에 그의 이론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전 그의 《통섭》을 읽으면서 속으로 “판타스틱!”이라고 몇 번이나 외쳤다.

글_박이문

지식을 위해 영혼을 판 파우스트의 후예, 윌슨

이 책에 대한 나의 반응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그 하나는 이 책의 저자가 ‘개미의 사회적 행동’ 전문가로 유명한 과학자이지만 책의 내용은 과학적이 아니라 철학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윌슨의 저서가 힌두교의 경전 《우파니샤드》, 노자의 《도덕경》, 기독교의 《성서》만큼이나 근원적이고 방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런 텍스트들과는 달리 철저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데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을 담은 과거의 모든 고전 텍스트들은 최근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의 일종이며, 그러한 텍스트의 저자들은 절대적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던 파우스트의 후예들이다. 헤겔과 윌슨도 바로 그러한 종족에 속하며, 각기 그들이 쓴 《정신현상학》과 《통섭》은 모두 앞서 예로 든 고전 텍스트가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지식의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 자신들의 국기를 꽂고, 마치 전지전능한 하느님 처럼 우주 전체를 한눈에 환히 내려다보면서 갖게 될 지적 투명성과 정복에 동반되는 환희를 경험했다. 그들이 보고 들려주는 우주의 총체적 그림과 이야기는 어떠한 소설보다 더 환상적이고 더 재미있다.

그들의 차이는 이야기의 주인공과 전개 방식에 있다. 헤겔의 경우, 우주 즉 모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상징시키는 가이스트(Geist)라는 시원적 정신 실체로서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이 변증법적 우주 논리에 맞춰 자기 인식이라는 자기 실현을 향한 성숙 과정과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라는 방식을 따른다.

윌슨의 경우,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이스트라는 정신적 실체가 아니라 무한에 가까운 쿼크처럼 물질적 미립자들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인과 법칙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과 해체를 거듭하는 물질적 작동 과정의 이론적 그림이다.

우주에 관한 비전의 틀에서 윌슨의 책은 모든 종류의 현상을 서술하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유물론적 형이상학과 완전한 환원주의적 인식론에 의존한다.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종류의 실체인 물질로 환원되고, 다양한 형상들은 과학적 이론이 전제하는 기계적 인과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의 자연, 아니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은 그의 인식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의 저서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아닌 철학, 특히 인식론에 더 가깝다.

그는 하느님, 정신, 자아, 종교, 윤리, 예술, 문명·문화, 경험, 선택, 자유의지 등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객관적 실체로 전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전제들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진리로 믿어왔지만 그런 믿음들은 첨단 과학적 지식으로 보자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 양식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생물학 현상은 인간의 DNA에 근거해서 진화론에 의존하며, DNA는 그것을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로, 화학적 원소는 쿼크의 구조와 행동 법칙으로, 행동 법칙은 쿼크의 기계적 인과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 형이상학과 과학적 인식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물론적 토대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통섭’ 되는 학문과 지식

윌슨은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속하는 침례교가 지배하는 미국 남부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기독교적 교육을 받았고, 열정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면서 유년, 소년 및 청년기

를 보냈다. 지방대학을 나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개미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면서 그는 변화하게 되었다.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실체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론자에서 물질만을 유일한 존재로 인정하는 유물론자로 변했다. 인식론적으로는 종교적 계시나 전통적 지혜가 아니라 실증과 논리만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과학적 인식론자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노벨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분자 생물학자, 작크 모노와 비슷하다.

윌슨은 신 혹은 신들의 존재, 그들이 거처한다는 초월의 영적 세계, 육체와 독립된 마음, 자아, 영혼, 자유의지를 믿지 않았다. 그는 창조론을 버리고 진화론을 택했으며, 동물과 인간 간의 형이상학적, 절대적 분류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존재는 물질로 환원된다. 인식론적으로 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절대적 분리도 수용하지 않는다. 과학적 세계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는 길은 오로지 실증적 경험과 논리적 추리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유물론을 전제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신념들은 유물론적 토대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학문과 지식이 단 하나로 '통섭' (統攝) 즉 대통합된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온 종교들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비트겐슈타인, 콰인, 데리다 등등의 철학에 대해서도 항상 강력한 비판과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사상의 진보와

문명문화의 발전은 바로 그러한 건설적 비판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인류의 사상사, 특히 서양의 사상사는 기존의 사상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과 공격의 역사였다.

윌슨의 형이상학과 인식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통섭' 이론도 마찬가지다. 유물론적 세계관이나 과학적 인식론은 영원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그의 유물론과 인식론은 곧바로 많은 이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 보다 세부적인 몸과 마음, 물질과 생명, DNA와 문화 등의 관계에 대한 그의 유물론적이고 환원적인 설명에 대해서 종교계나 인문학계는 물론 자연과학계의 비판도 쏟아졌다.

위와 같은 문제들만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윌슨의 학설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의 주장에는 일정 부분 사실적 구멍이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자의 박식, 논리, 주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방대한 지적 프로젝트에 압도당하면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학자가 아니라 생명과학자인 그가 쓴 이 책을 통해서 직업적 철학자가 쓴 철학적 저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철학을 배웠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그의 철학만큼이나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워 읽는 재미를 더 해준다. 마음을 비우고 지적 문을 열어놓고 읽으면 다른 독자도 나의 이런 감상에 공감하리라고 믿는다. **박민**

박민은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당신에겐 철학이 있습니까?》 등의 철학서와 《나비의 꿈》 등의 시집이 있다.



《통섭(지식의 대통합)》
에드워드 윌슨 지음 | 최재천 옮김 | 사이언스북스 | 558쪽 | 값 25,000원